

문화

■ 자동차디자인 대가 박종서씨 봉황중·고교서 자칭 강연

“강아지풀·호박넝쿨·나뭇잎...

자연보다 더 뛰어난 디자인은 없어”



본사 주최 유리전시에서 만난 아이들에 현대디자인 소개

“애들아, 디자인이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야. 너희가 등갓길에 본 강아지풀과 호박넝쿨의 곡선을 떠올려 보면, 또 나뭇잎의 무늬는 얼마나 아름답니. 그게 다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디자인)이야.”

지난 20일 오전 10시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봉황중·고등학교 체육관에 모인 160여명의 아이들은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고 야단법석이었다. 고3 수험생과 옛날 중1 소년까지 전교생이 모여, 체육관 바닥에 자리를 펴고 앉았다. 선생님들도 아침 일찍부터 체육관을 청소하고, 음향시설을 손보며 시골 학교에서는 좀처럼 열기 힘들었던 ‘특별 강연’을 준비했다.

이날 강연에 나선 강사는 서울에서 온 디자이너 박종서(국민대 공업디자인학과 교수)씨. 그는 국내 자동차 디자인의 역사를 얘기할 때 필수 없는 인물이자, 국내 첫 2도어 스포츠카 스쿠프, 해외에서 더 인기가 높았던 티뷰론, 돌고래 뿔처럼 생긴 산타페 등은 모두 그가 디자인했다. 세계 최고 디자인 학교로 명성 높은 영국왕립예술학교(RCA)의 졸업생이기도 하다.

호남 지역에 연고도 없고, 남 앞에 나서서 강연을 하는 걸 즐기지도 않는 박씨가 선뜻 먼길을 달려온 것은 시골 아이들의 간절한 초청 때문이었다. 지난 8월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렸던 ‘베니스 글라스 판타지아’(6월 19일~8월 22일·광주일보 주최) 전시장에서 박씨와 아이들은 우연히 만났다.

이후 아이들은 이 전시에서 출품된 유리 작품을 그림으로 그려 박씨에게 편지와 함께 보내며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갔다. 또 박씨는 ‘열심히 공부할테니 제발, 디자인 강의를 해달라’는 아이들의 부탁을 떨치지 못하고, 이날 학교를 찾게 된 것이다.

“자연의 모든 것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지만 누구한테나 보이지 않는단다. 자연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봐야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어.”

“자연에 숨어 있는 창의력”을 주제로 강의를 시작한 그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강조했다. 나뭇가지의 새순이 지그재그로 돌아나는 것은 아래에 위치한 나뭇가지가 충분히 햇빛을 쬐 수 있도록 한 ‘자연의 아름다운 배려’라는 것이다.

“나뭇가지의 지그재그 배열이 용수철을 디자인했고, 박쥐가 한쪽 발로 벽을 움켜쥐고 잠을 자는 모습은 병뚜껑을 만들어 냈고, 엉덩퀴 씨앗이 강아지 털에 붙은 것을 보고 ‘찍찍이’(벨크로테이프)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건 거지.”

그가 자연을 보고 착안한 다양한 디자인 사진을 보여 줄 때마다 아이들은 놀라워 했다. 자기들이 매일 보는 자연 속 많은 것들이 실은 창조의 소중한 소재였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디자인의 기본 무늬도 자연에서 온 것이며, 색채화도 꽃을 보고 만든 거야. 주변의 사물을 유심히 보면 너희도 훌륭한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단다.”

강의가 끝난 뒤에도 아이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박씨에게 물러들며 “사진을 해달라” “손을 잡아 달라”며 명절날 서울에서 온 삼촌 대하듯 했다. 살림이 뻥한 시골 학교의 초청 강의로서 강사로 한 훈받지 못했지만 강의의 마친 박씨의 표정도 밝았다. 먼저 자란 나뭇가지가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가지를 위해 빛을 양보하듯, 이날 강의는 서로에 대한 따뜻한 배려로 모두가 행복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사진=김진수 jeang@kwangju.co.kr

대한민국 한국화 대전

김동아씨 ‘세상밖으로’ 대상

광주시가 주최하고 한국미술협회 광주시지회(회장 정순이)가 주관하는 제22회 대한민국 한국화 대전에서 ‘세상밖으로’를 출품한 김동아(25)씨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2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내 옛시립미술관 전시장에서 열린 심사 결과 최우수상은 ‘참’을 출품한 김판목(26)씨, 우수상에는 ‘나뭇소리’를 출품한 김오근(49)씨와 ‘휴식’을 출품한 임천복(27)씨가 선정됐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500만원의 상금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이,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200만원의 상금과 시장상이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100만원의 상금과 운영위원장상이 수여된다.



김동아 작 ‘세상밖으로’

이번 공모전에는 광주·전남지역(115점)을 비롯 서울·경기(34점), 부산·울산(47점), 대전(27점), 전북(31점) 등 전국에서 총 254점이 출품됐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한국화가 송수련(중앙대 명예교수)씨는 “한국화부문에서 전국에서 유일한 미술대전으로 해마다 작품 수준이 향상되고 있어 한국화대전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했다.

대상작은 인물과 동물을 현대적 감각으로 탄탄한 기량과 조형언어로서 화면처리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고, 그의 최우수작과 우수작도 한국화의 다양한 형식과 표현기법을 엿볼 수 있는 우수한 작품이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26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내 옛시립미술관 전시장에서 열리며, 입상작 전시는 오는 26~30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전시된다.

■ 광주일보·시립미술관 ‘현대미술과 인문학’ 강좌 10탄

“신문·TV·인터넷·스마트폰...

미디어가 또다른 권력이 되고 있다”



한예중 미술원 김선정 교수 ‘미디어시티서울’

아침에 일어나 신문과 TV 뉴스를 보고,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홈페이지를 관리한다. 일과가 끝난 뒤에는 집에서 TV와 인터넷을 뒤지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검색한다. 현대인에게 미디어는 어떤 의미며, 또 미디어는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난 19일 오후 3시,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광주일보 주최 ‘현대미술과 인문학’ 강좌가 열린 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에는 100여명의 수강생들이 예술을 통해 미디어 흐름과 경향을 되짚어봤다.

이날 강좌에는 ‘미디어시티서울 2010’ 김선정(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 총감독이 강사로 나와 ‘미디어시티서울’을 주제로 강의를 했다. 지난 2000년 창설된 ‘미디어시티서울’은 미디어 아트의 흐름과 경향을 보여주는 전시다.

이번 ‘미디어시티서울 2010’(9월 7일~11월 17일)은 ‘트러스트’를 주제로 비디오아트, 인터랙티브아트, 테크놀로지 아트 등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예술 장르를 강의한 아티스트 교도소 폭동사건, 태국의 공산주의자들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믿음(believe)은 감정적으로 사실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며, 신뢰(trust)는 이성적인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감정적인 믿음보다는 이성적인 신뢰가 더욱 중요하게 됐고, 이번 전시에서는 ‘미디어 속의 신뢰’라는 것을 보여주고 했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 등지에서 열린 ‘미디어시티서울 2010’은 인문학적이고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미디어라는 매체의 특성을 살펴보는 자리였다는 평을 받았다.

하루가 다르게 미디어가 늘어나면서 정보는 왜곡되고, 메시지는 불투명해지고 있다. 또 미디어 매체가 다양해지고 대중화되면서 미디어는 권력과 지배의 또 다른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번 전시는 미디어아트 자체보다는 미디어의 다양한 모습과 그것이 제시하는 삶의 변화, 테크놀로지의 발달이 우리의 일상 생활과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은 우리의 일상에 다른 모습을 가져왔고, 신문, 잡지 등의 인쇄물과 텔레비전, 영화 등의 영상물은 텍스트 중심의 문화에서 이미지 중심의 문화로의 전환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화여대 서양화과와 미국 크랜브룩 대학원을 졸업한 뒤 2005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 커미셔너를 지냈다. 또 ‘플랫폼인기부사’ 등의 전시를 기획했고, 아트선재센터 수석 큐레이터 등을 지냈다.

한편 ‘현대미술과 인문학’ 다음 강좌는 오는 12월 17일(금요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사진작가 배병우씨가 강사로 나와 ‘자연의 미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린다. 수강료는 무료, 신청순 150명 입장이 가능하다. 문의 062-613-539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난 19일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에서 현대인의 삶과 미디어와 영향에 대해 강의하는 한국종합예술학교 김선정 교수.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이번 모임은 어디가 좋을까?

호남 제일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가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2인실부터 대형 연회장까지 다양한 접객실과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빔프로젝트, 음향 설비 완비 상견례, 회갑, 고회연 등 가족모임과 회식, 설명회 등 각종 모임에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식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여름 보양 메뉴 : 굴비정식, 삼계탕, 장어정식

금수장관광호텔 예의 게임동 홀플러스 건너편 아리랑하우스 문의 525-2111

movieholic 영화에 빠지다

영화와 함께!!

<p>상무점</p> <p>1관 불랑남녀 (15세)</p> <p>2관 랫미인 (15세)</p> <p>3관 두여자 (18세)</p> <p>4관 부당거래 (18세)</p> <p>5관 소우3D (18세)</p> <p>6관 소셜네트워크 (15세)</p> <p>7관 레드 (15세)/엔스토퍼블 (12세)</p> <p>8관 페스티벌 (18세)</p> <p>9관 초능력자 (15세)</p> <p>10관 초능력자 (15세)</p>	<p>아남점</p> <p>1관 초능력자 (15세)</p> <p>2관 부당거래 (18세)</p> <p>3관 불랑남녀 (15세)</p> <p>4관 가디언의 전설 (전체)/소우 (18세)</p> <p>5관 페스티벌 (18세)</p> <p>6관 엔스토퍼블 (12세)</p> <p>7관 두여자 (18세)</p> <p>8관 랫미인 (15세)</p> <p>9관 소셜네트워크 (15세)</p> <p>10관 초능력자 (15세)</p>
---	---

향토사랑! 영화사랑! 매일 심야상영 / 호남최대주자장 / www.cinus.co.kr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아남점 동시개봉!!

MEGABOX

최고급관

M관 초능력자 (15세)

2관 부당거래 (18세)

3관 랫미인 (15세)

4관 소셜네트워크 (15세)

5관 소우3D (18세)

6관 두여자 (18세)

7관 페스티벌 (18세)

8관 불랑남녀 (15세)

9관 초능력자 (15세)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자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시정상요금 부과

북구보건소 건너편 1544-0070

CINUS

색깔있는 영화상객 \* www.cinus.co.kr 세너스전대3D(4K)상영!!

1관 초능력자 (15세)

2관 부당거래 (18세)

3관 랫미인 (15세) / 초능력자 (15세)

4관 소우3D (18세) / 불랑남녀 (15세)

5관 엔스토퍼블 (12세) / 레드 (15세)

6관 페스티벌 (18세)

7관 소셜네트워크 (15세)